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9번) 왜	(5번)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7번) 주여 나를 받으소서	(8번) 구원자 예수

제 1독서 | 열왕기 하권 5,14-17

화답송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좌)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우)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좌)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 2독서 | 티모테오 2서, 2,8-1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7,11-19

오늘의 묵상 구절 |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이사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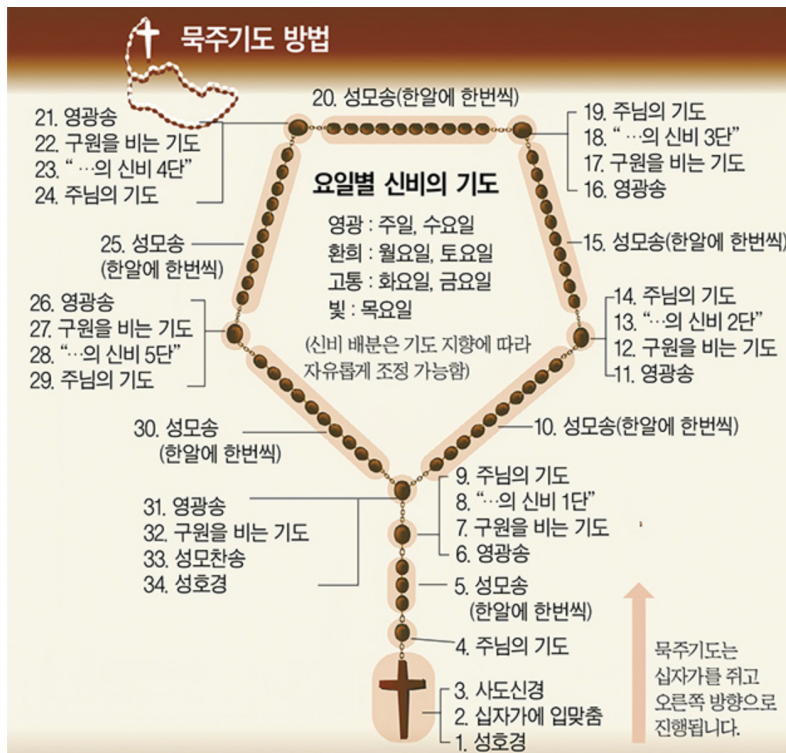
오늘의 복음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
 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
 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나?"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월 - 교회의 묵주기도 성월

* 묵주기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이하 교서) 3항)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물론 묵주기도는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묵주기도의 모든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어, '복음의 요약'과 같습니다. 묵주기도의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등 각 신비는 복음서에서 영감을 받았지요. 각 신비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시작해 유년 시절, 공생활, 수난과 부활, 천상적인 영광까지 복음서에 기록돼 있거나 복음서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묵주기도 묵상은 복음에서 출발하여 복음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묵주기도를 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는 주님의 구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을 쇄신하여 신앙의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어를 익힐 때 문법을 배우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문법은 단어를 가지런히 묶어 그 뜻을 더 분명하게 하고, 정확한 소통을 도와주니까요. 문법이란 말은 언어 공부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흔히 비유적으로 시대에 따라 ‘사회의 문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공감의 중요해진 오늘날에는 ‘감정의 문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전문가들의 문법도 있습니다. 영화 감독은 시점·편집·대사·촬영 기법을 엮어 영화의 문법을 만들고, 건축가는 생각과 공간 배치, 재료 선택을 통해 자신만의 문법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일하는 모든 방식 속에는 문법처럼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문법은 무엇일까요? 신학자 칼 라너의 창조 신학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창조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을 통해 그분의 문법을 읽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모든 순간에는 사랑의 방식이 함께했지요. 창조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언어의 ‘메시지’에 해당한다면, 사랑으로 일하신 규칙은 드러나지 않은 ‘문법’인 셈입니다. 창조는 사랑이라는 문법으로 쓰인 거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문법’은 삼위일체 안에서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느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을 이어주는 관계의 끈이 바로 사랑이지요. 성부께서는 사랑을 내어 주시고, 성자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 스스로를 내어 주시며, 성령께서는 그 사이를 잇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서로에게 군림하거나 분쟁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연결되는 문법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문법은 우리 안에도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지으셨고(창세 1,26 참조), 그 안에 삼위일체의 문법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도 사랑이어야 하겠지요.

문법은 책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사랑의 문법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살아가도록 이끌며, 그 길을 가꾸고 실현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사랑의 언어는 공동체 안의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담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미 새겨져 있던 문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하느님의 문법은 교회와 세상 한가운데에서 더욱 또렷하게 복음의 문장으로 새겨지고, 그 문장은 다른 이들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이 문법이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교황 레오 14세, <희망은 선택하는 것이다>

희망하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란 선택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성문(聖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보다 더 깊고 섬세한데 희망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이란 점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슬픔, 곧 게으름의 가장 일반적인 결과 중 하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보다 더 나쁜 내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희망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6' - 영적독서 모임 안내

- '영적독서 모임'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니다. 관심 있으신 신자 분들에게서는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캔버라성당 채널 채팅**을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성함과 세례명을 보내주세요).

- 모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온라인 모임)**에 있으며, 책 주문 및 배송이 완료되는 **11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영적 독서 모임과 별개로 책만 따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성당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캔버라성당 채널 채팅**을 통하여 책을 신청해주세요. 신청 기한은 **10월 26일 (주일)**까지입니다.

2. 다음주 주일 손님 신부님 방문

다음주 주일에 손님 신부님 2분께서 함께 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 Fr.박효식 사도요한 (대전교구 공주 신관동 보좌)
- Fr.김수형 필립보 (대전교구 논산 부창동 보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 요한 1서, 4,12



| 미사 참례자 수 |

9월 28일	유아·청소년: 17명	성인: 46명
10월 5일	유아·청소년: 명	성인: 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퀵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0월 12일)	마르코반
다음주 (10월 19일)	마태오반

| 봉헌금 & 교무금 | (10월 4일 ~ 10월 10일)

봉헌금	\$ 230.10			
교무금	\$ 520			
구민식	권모순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